

동일본대지진과 트위터*

- 탈원전운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김 효 진*

subculmania@gmail.com

〈 目 次 〉

- | | |
|-------------------------|------------------------------|
| I. 머릿말 | IV. 방사능 원전문제를 둘러싼 트위터 상의 움직임 |
| II. 트위터의 특징과 일본에서의 전개 | V. 맺음말: 트위터의 가능성과 그 의미 |
| III. 동일본대지진과 소셜 미디어의 역할 | |

Key word : 트위터(twitter),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동일본대지진(East Japan Great Earthquake), 소공공권(public sphericule), 탈원전운동(Anti-Nuclear Movements)

I. 머릿말

2011년 4월 26일, 일본의 원자력보안원(原子力保安院)은 동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이 초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멜트다운(meltdown)과 방사능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오염에 대해 외국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의 사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한다는 목적이었다. 일본의 TV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생중계된 이 기자회견의 모습을 문화비평가인 다케쿠마 겐타로(竹熊健太郎)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4월 26일 보안원이 실시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취재기자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2-A00019)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조교수, 문화인류학

가 한명도 오지 않는 추태를 보였다. 외국기자 전원이 일본정부나 도쿄전력(東京電力)의 공식발표에 대해 정보로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도 없는 회장을 향해 보안원 담당자가 ‘질문 있으십니까?’라고 말하는 광경은 초현실주의 그 자체였다.¹⁾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후 일본사회에서 정부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공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불신감이 이만큼 높아진 시기는 지금껏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미디어로서 단연 그 존재감을 어필한 것이 야후!재팬(Yahoo!Japan, <http://www.yahoo.co.jp>)과 구글(<http://www.google.co.jp>)로 대표되는 인터넷포털 및 검색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트위터(<http://www.twitter.com/>)였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인터넷 사이트 및 서비스 이용도에서 3위²⁾를 기록한 트위터의 부상은 ‘일본에서 아직 여명기에 있었던 소셜 미디어가 마음껏 그 힘을 발휘하여 피해지역과 그 외의 일본 국내 지역, 그리고 일본과 해외를 쌍방향으로 연결’³⁾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일본대지진은 단순히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재해’⁴⁾였다.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멜트다운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방사능 누출과 이후의 원전정책 등의 문제야말로 동일본대지진이 가져온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사례로 든 원자력보안원의 기자회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정부 및 매스미디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⁵⁾

1) 竹熊健太郎(2011) 「『終わりになきに日常』が終わった日」 『思想地図β』N o.2, contectures, p.150

2) 執行文子(2011) 「東日本大震災・ネットユーザーはソーシャルメディアをどのように利用したのか」 『放送研究と調査』, p.4

3) 立入勝義(2011) 『検証東日本大震災 そのときソーシャルメディアは何を伝えたか?』, ディスカヴァー・トゥエンティワン, p.4

4) 가와타 요시아키(2012) 『서장: 복합재해로서의 동일본대지진』 『검증 3.11 동일본대지진』, 도서출판문, p.29

5) 후쿠시마 원전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매스미디어가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는

이에 대해,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에서는 방사능 누출 문제 및 원자력 발전소 반대운동이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서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고 실제로 트위터나 믹시 등의 SNS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의 탈원전시위가 여러 차례 열리기도 했다.⁶⁾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변화한 인터넷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트위터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쌍방향성과 실시간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로서 일본사회에 새로운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본어인터넷에 등장한 새로운 ‘소공공권’(public sphericule)⁷⁾의 하나로서 트위터는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그 위상이 높아진 트위터를 중심으로 동일본대지진 당시 트위터가 활용된 양상과 그에 수반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방사능 원전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전개와 그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트위터의 특징과 일본에서의 전개

2006년 미국에서 개발되어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트위터(twitter, <http://www.twitter.com>)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전세계적으로 보급, 이용되고 있다. SNS는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용자 간의 쌍방향 의사교환 통로를 통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웹기반의 서비스⁸⁾’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비판은 일본사회 내부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山田賢一(2011) 『「東日本大震災, は日中韓でどう伝えられたか~国際シンポジウムでの報告・議論から~」, 『放送研究と調査』, 2011年12月, p.19를 참조하라.

- 6) 박지환(2012)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사회운동-‘아마추어의 반란’의 탈원전 데모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36호, 현대일본학회, pp.31~55 등의 논문을 참조하라.
 7) Glitin, Todd(2002) “Public Sphere or Public Sphericules?” in *Media, Ritual, and Identity*, London: Routledge pp.168-174 ; 遠藤薫(2010) 『「ネット世論」という曖昧-〈世論〉〈小公共圏〉〈間メディア性〉』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No.77, p.112.
 8) 조희순(2012) 『프롤로그』 『소셜네트워크와 정치변동』 한울아카데미, p.13

도 현재 가장 인기가 있고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서비스가 바로 트위터⁹⁾이다.

특히 트위터는 2000년대 후반, 전세계에서 일어난 시민운동 및 체제비판적 운동과 결합되면서 그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중동에서는 ‘아랍의 봄’으로 대변되는 민주화운동이 트위터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미국에서는 소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 불려진 월가 시위가 트위터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확산과 네트워크의 힘을 통해 트위터는 기존의 정치와도 활발히 결합하여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등에서도 그 위력을 드러내게 되었다. 나아가 한국의 경우에는 총선 등에서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젊은층의 투표독려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일본에 트위터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2008년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의 일본어버전이 공개되면서부터로 알려져 있다.¹⁰⁾ 그러나 도입 당시, 일본어로 된 인터넷 공간에서는 트위터가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상당히 존재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보환경 및 인터넷전문가인 하마노 사토시(濱野智史)의 견해이다.

우노 요시아스(宇野善康)의 『이문화간 굴절(異文化間屈折)』이라는 개념을 원용하면서 하마노는 미국과 일본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같은 플랫폼이라고 해도 다르게 발전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08년의 시점에서 일본의 얼리어댑터(early adapter)계층에서 보급되기 시작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해 대중화가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활동이 중심이 되고 또한 ‘오픈소셜’이 기본적인 원리인 이 두 개의 소셜미디어는 일본어 인터넷에서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익명게시판사이트인

9) 트위터는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140자 이내로 내용을 투고(tweet)하는 것이 기본적인 활동이다. 트위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면 ‘홈(home)’이라는 항목 아래 유저 본인만이 볼 수 있는 타임라인(TL)이 생성되는데 여기에는 유저 본인이 팔로(follow)한 다른 유저가 남긴 투고내용이 시간순으로 표시되어 이에 대해 유저 본인이 자유롭게 인용하거나(RT, retweet), 반응하거나(@계정명, mention), 특정주제에 대한 내용을 투고(#, hash tag)할 수 있다.

10) 일본어 위키피디아의 twitter항목 (<http://ja.wikipedia.org/wiki/Twitter>, 2013. 09. 28).

니찬네루(<http://www.2ch.n-et/>)나 일본에서 개발된 SNS인 믹시(<http://mixi.jp/>) 등 개인의 활동보다는 폐쇄적인 집단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심이 되는 일본어 인터넷 환경과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¹⁾

그러나 이와 같은 예상과는 달리 일본어 트위터가 개발되어 공개된 2008년 이후 트위터 유저는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트위터 유저 수는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19배가 늘어났으며 세계적으로도 영어나 다음으로 일본어 트윗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이후에도 트위터 이용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본대지진을 기점으로 트위터에 대한 주목도 및 인지도가 높아진 점과 함께 2000년대 후반의 전세계적에 걸친 트위터의 영향력 증대도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동일본대지진과 소셜 미디어의 역할

1. 정보미디어로서 SNS의 부상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발함에 따라 도호쿠(東北)지방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통신인프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대지진 이후 안부확인 전화가 쇄도하여 평소보다 50배 이상의 트래픽이 집중되어 직접적인 피해지역이 아니었던 수도권에서도 대부분의 전화와 메시지가 불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때 안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부상한 것이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였다. 휴대전화는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인터넷 연결망을 이용하여 트위터나 믹시 등에 자신의 안부를 남겨 놓거나, 라인(Line)과 같은 스마트폰 전용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이다.¹²⁾

11) 濱野智史(2008) 『アーキテクチャの生態系：情報環境はいかに設計されてきたか』 NIT 出版, p.156

12) Line은 네이버 재팬(Naver Japan)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전용 메시지 서비스로 한국의 카카오톡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일한국인 유학생의 경우, 동일본대지진 발생

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개인 차원에서의 안부확인에도 도움을 준 트위터는 ‘지금까지의 지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라는 평가에서 정보전달을 위한 도구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기 위한 걸음을 내딛었다’¹³⁾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비교하여 이동형의 미디어로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보, 구체적인 지역 맞춤형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트위터 외에도 블로그나 mixi, facebook, 구글파인더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글이 이어졌다. 실제로 재해시 맞춤형 정보 미디어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본어판 트위터에서는 2012년 9월, 전세계에서 최초로 <라이프라인 계정(lifeline account)>기능을 신설하여 우편번호만 입력하면 재해시 라이프라인 관련 계정(관공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개하기도 했다.¹⁴⁾

이는 대지진 당시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2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1)대지진을 계기로 소셜 네트워크의 인지도나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일본사회에서의 존재감이 커지고 2)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융합이나 제휴의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¹⁵⁾

1)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히로시마의 한 중학생이 NHK방송을 Ustream을 이용하여 무단중계한 사실을 들 수 있다. TV가 광범위한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가장 유효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진 당일에 TV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 증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소셜네트워크가 해결하는 역할을 하여, 인터넷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TV화면의 중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트위터를 통해 NHK에 전달되자, 그 취지에 찬동한 NHK방송국이 3월 11일 20시부터 직접 Ustream을 통해 프로그램을

시 휴대전화로는 한국과의 연결이 불가능했던 반면에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리얼타임으로 연락을 취한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震災で大活躍したスマホアプリは憎き敵! ?」(<http://pc.nikkeibp.co.jp/article/column/20110407/1031159>, 2013. 09. 15)

- 13) 吉次由美(2011)「東日本大震災に見る大災害時の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役割〜ツイッターを中心に〜」『放送研究と調査』2011年7月号, p.23
- 14) 「ライフラインアカウント検索：地域の災害情報を得るために」, 일본어판 트위터 블로그 2012년 9월 18일자 포스팅 (http://blog.jp.twitter.com/2012/09/blog-post_18.html, 2014 .6 .05)
- 15) 立入勝義(2011)같은 책, p.4

중계하기 시작했다. 한때 동시접속자가 100만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지는 이와 같은 시도는 재해보도의 선진적 사례로서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또한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는 정보인프라가 파괴된 피해지로부터의 구조 및 원조요청을 전달하는 미디어로서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1년 3월 26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0km권역 안에 들어간 미나미소마(南相馬)시 사쿠라이 가츠노부(桜井勝延)시장이 정부로부터 지원이 늦어져 피해지역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는 10분간의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여 전세계에 구조요청을 발신하여 화제가 된 것을 들 수 있다.¹⁶⁾

또, 트위터를 중심으로 대지진이나 원자력발전소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계정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팔로우 하여 전문가가 발신한 전문적 지식이나 설명을 스스로 선택할 뿐만 아니라 리트윗을 통해 정보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경우도 많았다.¹⁷⁾ 이는 특히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방사능의 피해규모 및 그 영향에 대해 공식적인 정보가 한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들은 트위터를 비롯한 다양한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 지금까지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던 전문가의 계정이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부상하는 사례도 등장했다.¹⁸⁾ 특히 후쿠시마 원전의 멜트다운이나 피폭에 대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소셜네트워크의 특성상 해외로부터

16) ‘SOS from Mayor of Minami Soma City, next to the crippled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Japan’ (<http://www.youtube.com/watch?v=70ZHQ-cK40>, 2012. 10. 05)

17) 執行文子(2011) 「東日本大震災・ネットユーザーはソーシャルメディアをどのように利用したのか」 『放送研究と調査』 2011年8月号, p.7

18) 원자력 전문가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멜트다운이 일어났을 당시 상황을 해설하는 트윗을 지속적으로 투고한 하야노 료고(早野龍五, @hayano) 도쿄대학대학원 이학계연구과 교수의 계정은 동일본대지진 이전에는 2300명의 팔로워 뿐이었으나 동일본대지진 이후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현재 12만명 이상이 그를 팔로우하고 있다.

의 응원 및 지원도 보다 직접적인 형태를 띠었다. 트위터의 #해시 태그, 이것을 붙이면 동일한 테마의 트윗을 보다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다(기능을 이용하여, 시민운동으로서 #prayforjapan이나 모금운동 등 국경을 넘어서는 네트워크의 힘이 다양한 형태로 발휘되었다.¹⁹⁾

이와 같이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가 각광을 받게 된 상황의 배경에는 역시 정부나 종래의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 재해시의 일차적인 정보원으로서 NHK를 비롯한 방송이 가장 많이 언급되며, 또한 신문사의 속보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47NEWS(온나뉴스, <http://www.47news.jp/>)로의 접속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보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해외의 보도내용도 인터넷을 통해 일본사회에 신속하게 전달되는 상황에서, 특히 후쿠시마원전의 방사능유출에 대한 해외 매스미디어의 보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어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종래의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정보를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인터넷,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입수할 수 있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SNS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상세히 다루겠다.

2.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

그러나 동일본대지진시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보여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피해지역에서 대두한 비판을 소개하자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재해지의 입장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과 인구 과소지역에 거주하는 노년층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된다.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연락을 취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지역이 아닌 지역,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정보의 중앙집중화, 더 나아가 ‘소셜 디바이드(social divide)²⁰⁾’를

19) 立入(2011), 앞의 책, pp.40-48

20) 이 때 소셜 디바이드는 소셜미디어나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의 유무에 따라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문제삼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뜬소문피해(風評被害)로 대표되는 허위정보, 유언비어도 끊이지 않았다. 오기우에(荻上)에 의하면, 동일본대지진에서 유행한 허위정보 및 유언비어에는 기존의 재해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²¹⁾ 이는 ①피해범위가 심대했던 점, ②정보기술이 침투한 이후의 대지진이었다는 점, ③원자력발전소의 사고라는 요소가 존재했다는 점의 3가지인데, 특히 ②의 정보기술의 침투는 예전에는 피해지를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유언비어나 헛소문이 현재에는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확산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²²⁾

그 중에서는 RT기능을 통해 허위정보나 유언비어를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었다. 특히 유명한 것은 대지진 당일 발생한 차바(千葉)현 코스모석유(コスモ石油) 저장고에 일어난 화재를 소재로 한 ‘코스모석유의 검은 비(コスモ石油の黒い雨)’라는 허위정보로, 대지진으로 일어난 대규모 화재에 당황한 많은 트위터사용자들이 앞으로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검은 연기가 섞인 유해한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경고를 엄청난 속도로 리트윗한 사례이다. 화재 발생 초기에는 검은 연기가 인체에 유해할 것 같다는 걱정의 내용을 담은 트윗이 발견될 뿐이었던 것이 점차 연쇄적으로 리트윗되면서 유해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단 몇 시간 내에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다른 사례에서도 흔히 발생했다.

또한 불확실한 정보나 허위 구조요청이 지속적으로 게재됨으로써 마치 사실처럼 통용되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나 커뮤니티에는 지원이 닿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유언비어, 허위정보가 유행하는 등 SNS의 장점이기도 한 ‘주체적 정보선별’은 다양한 문제들을 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트위터에 리트윗된 구조요청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²³⁾

21) 荻上チキ(2011) 『検証東日本大震災の流言・デマ』, 光文社新書, p.22

22) 동일본대지진 당시 유행했던 트위터상의 허위정보나 유언비어를 정리하여 검증한 것으로 『東日本大震災に関するデマまとめ(@jishin_dema) 基本情報集』(<http://togetter.com/li/180783>, 2014. 6. 20.) 등이 있다.

23) 荻上(2011), 앞의 책, p.101

소셜미디어에 의하여 발생한 허위정보, 유언비어 확산의 배경에는 ‘정보 자원봉사 지원자’가 존재한다. ‘지진발생 직후부터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진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야 한다’라며 인터넷 앞에 달라붙어 필사적으로 정보를 발신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²⁴⁾ 이와 같은 사태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선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지만 반면에 정보의 진위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 나아가, 소셜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진 다양한 캠페인(트위터의 ‘야시마 작전(ヤシマ作戦)’, mixi의 ‘손을 잡아요(手をつなごう)’ 등)은 한편으로는 소셜미디어 특유의 시민운동으로서 평가되는²⁵⁾ 반면, 실제로는 그 정도의 효과는 없었으며 단순한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았다는 엄격한 비판도 니찬네루를 중심으로 하여 제기되기도 했다.²⁶⁾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캠페인에 대한 비판은 그 유래를 소급해보면 ‘슬랙티비즘(slacktivism)’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이 개념은 ‘게으른 사람(slacker)’과 ‘사회운동(activism)’의 합성어로, 노력이나 부담을 갖지 않고 사회운동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데도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족적 행위에 대한 경멸감을 담아 사용된다²⁷⁾고 정의된다. 또한 대지진 직후 계속적으로 정보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재해 카니발²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역시 동일한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대지진 직후, 피해지에서의 인터넷 사용은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인터

24) 荻上(2011), 위의 책, p.92

25) 立入(2011), 앞의 책, p.172

26) 『今回の大震災で「速民が一瞬間に蓄えた知識」スラックティビズム』とは何か(俗称なども),(<http://blog.livedoor.jp/kokovip/archives/2405496.html>, 2014.03.31).

27) 일본어 위키피디아의 <슬랙티비즘> 항목에서 인용(<http://ja.wikipedia.org/wiki/%E3%82%B9%E3%83%A9%E3%83%83%E3%82%AF%E3%83%86%E3%82%A3%E3%83%93%E3%82%BA%E3%83%A0>, 2014.04.23).

28) 학원제나 지방의 축제를 가리키는 말인 ‘축제=카니발’의 경우 사람들의 기분이 고양되듯이 태풍이나 대설과 같은 이상 기후의 경우에도 기분이 고양된 채로 그러한 ‘이상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을 기대하는’ 상태를 말한다. 荻上(2011) 앞의 책, p.95.

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곳은 실제 피해지가 아닌 수도권이나 관서지방이었다는 사실과도 관련하고 있다. 이번 대지진의 경우 뜬소문피해(風評被害)가 실제 재해지역이 아닌 주로 타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²⁹⁾

전반적으로 SNS는 기존 매스미디어로는 커버할 수 없는 1차정보 및 지역에 특화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반면 이는 대체로 피해지 이외의 지역에서의 이야기이며 인터넷이 연결되는지 알 수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결국 그 결과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³⁰⁾.

IV. 방시능·원전문제를 둘러싼 트위터 상의 움직임

III에서 살펴본 바, 동일본대지진을 기점으로 트위터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는 그 당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에서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미디어로서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았다. 주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소셜미디어의 경제적인 효용성을 강조하는 종래의 시각³¹⁾에 더해 누구나 발신할 수 있는, 보다 평등한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이 대두된 것이다. 특히 이는 상호네트워크적인 측면이 강한 facebook에 비해 정보발신에 보다 최적화된 트위터에서 현저하며, 동일본대지진 이전에 이미 일본사회에서 소셜미디어가 도입,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흐름인 ‘소셜네트워

29) 土田昭司・廣瀬幸雄(2012) 『震災原發事故に伴う市民・消費者・外國人の対応行動』 『検証3・11東日本大震災』關西大學社會安全學部編, ミネルヴァ書房, p.256

30) 津田에 의하면 외부에 대한 리더의 태도도 커다란 차이를 가져왔다. 앞에서 소개한 미나미소마시의 경우가 외부에 적극적으로 발신하고자 한 경우라면, 극히 일부에서는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리더가 인터넷 접속 자체를 거부한 경우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津田大介(2011) 『ソーシャルメディアは東北を再生可能か』, 『思想地図』2호, CONTECTURES, p.63을 참고하라.

31) 소셜미디어가 탄생한 미국에서는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적인 이익 추구하고 공익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소셜미디어는 어디까지나 기업홍보나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小林弘人・濱野智史(2010) 『対談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の可能性 シェアは何を変えるのか?小林弘人×濱野智史』『ユリイカ』, 2011년2月号, pp.51-54를 참조하라.

크 혁명'에 일본사회가 동참한 것은 동일본대지진 이후라는 주장³²⁾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다.

특히 이는 복합재해로서 동일본대지진이 초래한 방사능 문제 및 탈원전은 동과 결부되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 점을 구체적인 사례- 1) 투게터(<http://togetter.com>)의 활용, 2) 원자력발전소 비공식계정의 활동, 3) 탈원전은 동과의 관련성-를 통해 살펴보겠다.

1. 사례 1 : 트위터 전용 큐레이션 서비스 'togetter'의 활용

일본어 트위터에 특화된 서비스로서 외국과는 상이한 소셜미디어의 전개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트위터의 정리서비스인 '투게터(togetter)'를 들 수 있다. 일본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투게터는 '트위터상의 투고를 특정의 화제별로 수집하여 정리하는 서비스의 명칭³³⁾'으로 트위터에 특화된 큐레이션 서비스이다. 이때 인터넷 미디어에서 큐레이션이란 '정보에 가치를 붙여 정보와 정보를 이어나가 새로운 가치(문맥=컨텍스트)를 생산하는 행동과 개념을 가리킨다. 종래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정보수집이 기계적으로 정보를 모으기만 하는 것이었던데 비해 사람의 가치판단이 더해지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³⁴⁾

기본적으로 트위터는 유동형 미디어로서 어떠한 테마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면에는 강하지만 그 정보를 정리하는 기능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³⁵⁾ 이를 보완하는 플랫폼으로서 투게터는 '트위터에서 생긴 재미 있는 일이 togetter에 모인다³⁶⁾'는 캐치프레이즈가 보여주듯이 어떤 테마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고된 트윗을 모아 일람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그 자체의 트위터 계정(@togetter_jp)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목받는 테마를 알

32) 立入(2011), 앞의 책, p4

33) 「IT용어사전—togetter란」(<http://www.weblio.jp/content/Togetter> 2012. 08. 31)

34) 「キュレーションって何ですか? NAVER森川社長に聞く」(2011년 1월 29일자)에서 인용. (<http://ascii.jp/elem/000/000/584/584037/>, 2013. 12. 3)

35)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togetter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대신 다음(<http://daum.net>) 등의 포털사이트에서는 파워 트위터러인의 트윗을 리얼타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트위터상의 화제를 소개하는 코너를 취급하고 있다.

36) 「大企業も使う個人サービスTwitterまとめ「Togetter」を作る人(1/2)」에서 인용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004/19/news059.htm>, 2013.08.31).

려준다. 이외에도 1주일, 1개월, 1년을 기점으로 유저들의 반응이 가장 왕성했던 테마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등, 2009년 9월에 공개된 이후 *togetter*의 사용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1월에는 월간 1000만 페이지뷰³⁷⁾를 달성하였고, 현재는 월간 3000만 페이지뷰에 이른다.

특히 동일본대지진 당시, 이어지는 허위정보와 유언비어의 트윗을 모아서 이를 검증하여 정리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페이지는 실제 잘못된 정보의 폐해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³⁸⁾ 개개인의 차원에서 유언비어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된 정보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진위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언비어와 허위정보가 트위터를 통해 오갔는지를 정리하고 이를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이러한 노력은 큰 힘을 갖는다. 특히 유언비어와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을 개개의 트윗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에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길러주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실은 이러한 ‘정리’ 서비스라는 점에서 *togetter*가 최초는 아니다. 트위터에서는 최초의 서비스임에 확실하지만 그 이전에는 주로 2찬네루의 스레드에 투고된 코멘트를 정리하여 표시하는 2찬네루 계열의 정리뉴스블로그가 성행했으며 현재에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³⁹⁾ 다만 2찬네루계열의 정리사이트·블로그는 사이트나 블로그 주인의 정체를 알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흥미본위로 운영되는데 비해, *togetter*는 혼잣말을 남긴 당사자들이나 편집자의 아이덴티티가 표시되며 일상적인 화제나 상식에서 전문가에 의한 토론까지 테마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그리고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별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개인’의 활동을 중시하는 플랫폼인 트위터조차 어떠한 테마에 관한 다수의 트윗을 ‘정리’하여 보존하고, 타인이 읽도록 하여 ‘공유’하며 반응한다(타인도 코멘트를 남길 수 있다)는 구조가 창출됨으로써 인기를 얻게

37) 『月間1000万PV突破の人気WebサービスTogetterはこうして産まれた(前編)』(<http://wise9.jp/archives/6754>, 2014.01.11).

38) 앞에서 소개한『東日本大震災に関するデマまとめ(@jishin_dema)』基本情報集(<http://togetter.com/li/180783>)이 가장 대표적인 정리이다.

39) 柏原勤(2012)『2ちゃんねるのスレッドまとめブログ』によるニュー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関する一考察, 『哲學』128集, 慶応義塾, p.210

되었다는 점은 역시 트위터의 일본사회에서의 전개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유저에 의한 노력 외에도 투게터는 사이트 차원에서 동일본대지진을 중요한 이슈로 보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2012년 10월 현재 투게터 홈페이지의 주요 카테고리의 하나로서 ‘지진(震災)’이 들어가 있으며 이 카테고리 아래에는 부흥/ 원자력발전소/지원/정부/자치체의 5개 서브메뉴가 있는데 이중 원자력발전소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원전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트윗을 묶어 정리한 테마들이 지속적으로 투고되고 있다. 메인화면이 <주목 정리>와 <신착 정리>로 크게 나뉘어 실시간으로 투고되거나 관심을 끌고 있는 테마를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는 한편, 오른쪽의 ‘이 카테고리의 주목 큐레이터(このカテゴリの注目キュレーター)’에는 이 카테고리에서 투고한 정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는 순서에 따라 실시간으로 랭킹이 매겨져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리 및 큐레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탈원전 시위 상황에 대한 정리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에서 개최한 원전관련 설명회, 피해지역의 부흥 상황, 전문가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설, 원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반박 등, 상이한 입장에서 제기한 다양한 테마에 따른 정리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투게터는 방사능 원전 관련 정보가 여전히 한정된 일본사회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사례 2: 원자력발전 관련 비공식계정의 활동

또 하나, 트위터 상에서 흥미로운 흐름으로는 ‘몬주쿤(@monjukun, <http://monjukun.com/>)’ 등의 일본 원자력발전 관련 비공식계정의 개설 및 활동을 들 수 있다. 전자는 후쿠이(福井)현의 몬주(もんじゅ)고속중식로를, 후자는 아오모리(青森) 룻카쇼무라(六力所村) 핵연료처리장을 귀여운 캐릭터로 의인화한 것으로서, 양자 모두 동일본대지진 이후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원래 트위터 계정에 자동, 혹은 반자동으로 저장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일컫는 ‘봇(bot)’은 현재 전세계의 트위터에 실존인물부터 가상의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정이 존재하는데, 이 두 계정의 경우, 봇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아닌 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이들은

비공식 특유의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단순히 탈원전이라는 입장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력발전소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활동이 활발한 것은 10만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몬주쿤이다. “빨리 일 그만두고 싶어... 고속증식으로 몬주쿤입니다. 겐파츠긴자(原發銀座) 출생, MOX연료에서 자랐습니다. 세금을 하루에 5500만엔씩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완성! 저서에 『가르쳐줘! 몬주쿤(おしえて! もんじゅ君)』 『우리 미래의 에너지(みんなの未来のエネルギー)』 등. 연락은 monju8181(a)gmail.com으로. JAEA비공인입니다”라는 유머러스한 프로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격적인 가동 이전에 이미 고장으로 매일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몬주고속증식로를 풍자하고 있다.

특유의 어조(~ですだよ)와 부드럽고 귀여운 캐릭터로 인기를 얻고 있는 몬주쿤은 파워트위터리안으로 유명한 쓰다 다이스케(津田大介)와의 대담 및 원자력 관련서적⁴⁰⁾을 여러권 출판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인기의 비결은 원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전에 대해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2011년 4월에 계정을 개설한 이유에 대해 몬주쿤은 동일본대지진 직후 몬주고속증식로의 위험성을 지적한 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의 동영상⁴¹⁾이 유튜브에 업로드 된 것이 계기였음을 언급하면서 원자로 전문가인 오마에는 탈원전 파라기보다는 현실중시의 입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몬주만은 그만둬야 한다’라고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전반적으로 일본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원전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탈원전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 예를 들면 몬주쿤과의 대담에서 쓰다는 ‘몬주쿤의 인기는 원자력마을(原子力村)의 정보발신이 마땅치 않음에 대한 반작용⁴¹⁾’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에 대한 입장과는 별도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

40) 『おしえて! もんじゅ君—これだけは知っておこう 原發と放射能』(2012) 『もんじゅ君対談集 3.11で僕らは変わったか』(2014) 등이 있다.

41) 『津田大介さん x もんじゅ君對談高速増殖爐もんじゅ君の語る『ツイッター情報発信術』』(<http://monjukun.com/20120321tsudamag.html>, 2013.09.11).

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기반한 봇계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의적절성으로 주목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4년 4월 현재 36000여명의 팔로워를 자랑하는 ‘플루토쿤봇(@plutokun_bot)’이 바로 그것으로, 원래 1993년 원자력보안원에 의해 제작된 원자력 발전소 홍보비디오인 <믿을 수 있는 친구 플루토쿤 플루토늄이야기(頼れる仲間プルト君 プルトニウム物語, <http://www.youtube.com/watch?v=fEgUVJruvME>)>에 등장하는 플루토쿤이 계정의 주인공이다. 그러나 원래 캐릭터가 만들어진 1993년에는 트위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 계정은 동일본대지진 직후인 2011년 4월에 개설되었다.⁴²⁾

흥미로운 것은 90년대 공개 당시, 이 홍보비디오에 포함되어 있는 플루토늄의 안전성에 대한 주장이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아 비디오가 절판되었다는 점이다. ‘플루토늄은 청산가리처럼 마시면 바로 죽는 극약이 아닙니다’ ‘플루토늄은 물과 함께 마셔도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플루토늄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비디오에 등장하는 플루토쿤이라는 캐릭터가 2011년 4월 일본어 트위터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화롭고 안전한 클린 에너지로서 원자력발전을 권장하고 있’⁴³⁾는 플루토쿤이 투고하는 트윗은 비디오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예를 들면 방사능 누출에 의한 피폭을 우려하는 멘션에 대해 비디오에서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를 마셔도 ‘대부분은’ 배출되고 마신다고 해도 ‘일부는’ 토해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 반감기는 겨우 2만4천년이니깐! 라는 식의 답변이 이어지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일본사회에 있어 1993년 당시에 통용되던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투고와 멘션을 쉬지 않고 반복하는 플루토쿤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통렬한 사회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42) 일본어 위키피디아 『頼れる仲間プルト君 プルトニウム物語』항목 참조
(http://ja.wikipedia.org/wiki/%E3%83%97%E3%83%AB%E3%83%88%E3%83%8B%E3%82%A6%E3%83%A0%E7%89%A9%E8%AA%9E_%E9%A0%BC%E3%82%8C%E3%82%8B%E4%BB%B2%E9%96%93%E3%83%97%E3%83%AB%E3%83%88%E5%90%9B, 2014. 06. 05).

43) http://twitter.com/plutokun_bot 의 프로필에서 인용

3. 사례 3 : 탈원전운동과의 관련성

마지막으로 트위터와 탈원전운동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하여 일어난 정치적 움직임의 중심에는 탈원전·탈원전운동이 있을 것이다. Slater 등은 노동조합운동의 쇠퇴에 의해 일본사회에서 주변적(periphera)인 영역에 머물러 있던 반체제운동이 동일본대지진이 초래한 정보 네트워크의 변화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류사회에 보다 접근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⁴⁵⁾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시민단체에 의한 방사선량 측정이나 관련정보 공개,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탈원전데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 반발하여 개개인이 직접 가이거카운터를 구입하여 자신의 생활 환경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그 수치를 공개하는 사례를 트위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적인 방사선량 측정에 대해서는 그 정확도나 효과에 대한 다양한 반론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정부에 의존하는 대신 시민차원에서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정보를 발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탈원전 데모에 대해서는 일본의 매스미디어에서는 그다지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를 통해 시위 제안이나 관련 정보가 확산되어 6만인 이상(2011년 9월 19일) 및 7만인 이상(2012년 7월 16일의 사례)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공함으로써 해외 매스미디어의 주목을 받았고, 일본의 매스미디어에서도 일부 보도되기도 했다. 과거와는 달리 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1960년대 안보투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기록된 이상의 사례들은 Slater 외(2011)이 논하는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나타난 소셜미디어의 두 가지 용도- 1) 시위 등의 대중적 이벤트를 견인하는 도구적 용도 및 2) 보다 사적인 연대와 연결의 정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구성적(constitutive) 용도-를 잘 보여준다. 대재해가 불러일으킨 방사능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서로 나누고 소통함으로

44)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연구자의 2014년 논문「3.11 동일본대지진과 ‘플루토군’의 부활- 캐리커의 정치학과 ‘번역’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39호, pp.317-340을 참조하라.

45) Slater, Nishimura and Kindstrand (2012)“Social ‘Media, Information and Political Activism in Japan’s 3.11 Crisis.”(<http://www.japanfocus.org/-Nishimura-Keiko/3762>, 2014. 02. 27)

써 그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결과, 지금까지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식되어 온 탈원전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의 정치적 파급력에 대한 논의는 일본사회, 더 나아가 일본의 학계에서는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동일본대지진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분석 중에서도 탈원전운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⁴⁶⁾ 이는 일본사회에서 소셜미디어와 정치와의 연결이 아직은 너무나 미약하거나 혹은 일본의 맥락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연구자는 탈원전운동 만이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소셜미디어와 정치간의 상호작용이 이미 확립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참여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간주되는 미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의 발신은 아직도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아직 소셜미디어와 정치간의 연관성이 낮은 상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한다.

V. 맺음말 : 트위터의 가능성과 그 의미

우선 이번 대지진을 통해 명백해진 사실은 지금껏 대립적 위치에 존재한다고 여겨져 온 종래의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이 정보전달에 있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일본대지진 당시, 사람들은 대체적인 정보는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입수하고 인터넷을 통해서서는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세세한 정보를 확인하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스스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유례가 없었던 대형재해에 직면하여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모두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앞으로의 협력

46)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일본어 문헌은 탈원전운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다루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본문에서도 소개한 立入(2011)도 동일본대지진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난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총 250페이지 중 탈원전운동에 대해 다룬 것은 단 3페이지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탈원전운동에 대한 소개보다는 주로 기존 매스미디어가 탈원전운동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머물러 있다.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47)

특히 트위터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의 부상이 일본사회에서 인터넷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불러왔다는 점도 중요하다. 야후!재팬의 관계자인 가와베 겐타로(川邊健太郎)는 ‘인터넷의 불건전성’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일본사회에는 ‘인터넷은 허위정보나 비방과 중상이 횡행하는 장소로 ‘건전하지 않’으며 ‘염상(炎上)’이나 ‘인터넷의 암흑’등 마치 ‘인터넷만을 악인으로 여기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견해가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⁴⁸⁾ 일본인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대립하는 측면이 부각되면서⁴⁹⁾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번 대지진을 계기로 인터넷의 사회적인 순기능이 보다 부각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이 점차적으로 상호협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은 이미 일본사회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위터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시청자의 반응을 생방송 중에 소개하여 즉석으로 토론을 벌인다든지, 정부관련 행사를 공식적으로 인터넷 TV로 생중계할 뿐만 아니라 방청객 스스로 노트북등의 간단한 장비를 이용해 동영상을 통한 개인적인 생중계 및 트위터를 통한 실시간 문자중계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엔도 가오루(遠藤薫)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누구나 1차 정보의 발신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누구나 그 1차 정보의 현장에 있는 듯한 감각을 공유하면서, 광역적인 사람들과의 의견교류가 가능한 장소(소공공권, public sphericule)을 열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⁵⁰⁾

이때 ‘소공공권’은 Gitlin(1998)이 고안한 개념인데, 오늘날 같이 다양한 플랫폼의 미디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론장(public

47) 구체적으로는 NHK가 발간 출판하고 있는 방송연구전문잡지 『放送研究と調査』에 실린 논문을 비교해 보면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소셜네트워크나 인터넷의 역할을 분석평가하는 논문이 연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48) 川邊健太郎(2012) 『東日本大震災とYahoo!JAPAN』 『放送メディア研究』 No.9, p.108

49) 대표적인 사례는 니찬네루일 것이다.

50) 遠藤薫(2010), 앞의 논문, p.125

sphere)으로 바라보는 대신, 다양한 소공공권 간의 상호작용의 총체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여론’, 하나의 ‘공공권’을 고집하기 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소공공권과 그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여론들이 일으키는 상호작용의 총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흔히 극단적인 반응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어인터넷 또한 바로 다양한 소공공권이 가시화되고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장으로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소공공권중에서도 일본어 트위터는 엔터테인먼트툴에서 정보미디어, 더 나아가 정치적 표현의 수단이라는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니찬네루로 대표되는 익명계시판군이 일견 상호대립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상호의존적인 소공공권군을 이루고 있었던 상황⁵¹⁾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성격의 ‘소공공권’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것은 일본어판 트위터가 일본어 인터넷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일본 도입초기, 트위터는 엔터테인먼트 툴의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었지만,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소셜미디어의 대표로서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띠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투게터 등의 서비스를 통해 과거에는 니찬네루 등의 익명계시판에서 주로 벌어졌던 논쟁이 트위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도입 초기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대지진에 의해 종래의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소셜미디어는 니찬네루와는 다른 차원의, 즉 매스미디어의 안티테제만이 아닌 또 하나의 미디어로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탈원전운동이 기존 매스미디어의 외면 속에서 소셜미디어에 전적으로 의존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차원에서 일어난 탈원전운동이 발신되고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51) 니찬네루 유저는 인터넷의 헤비유저인 동시에 매스미디어의 헤비유저이기도 하다는 점, 그리고 니찬네루 유저는 매스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실은 그것들을 즐기고 빈번하게 접하고 있다는 점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田辺龍(2006) 『『匿名掲示板』と世論形成の磁場』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No.68, pp.42-53을 참조하라.

필수적인 도구라는 직접적인 관련성 이외에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급속하게 늘어난 트위터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매스미디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된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점에서 트위터는 일본사회라는 맥락에서 인터넷과 정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것이다.

〈参考文献〉

- 가와타 요시아키(2012) 「서장: 복합재해로서의 동일본대지진」 『검증 3.11 동일본대지진』, 도서출판문, p.29.
- 김효진(2014) 「3.11 동일본대지진과 ‘플루토군’의 부활-캐릭터의 정치학과 ‘번역’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39호, 현대일본학회, pp.417-440.
- 박지환(2012)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사회운동- ‘아마추어의 반란’의 탈원전 데모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36호, 현대일본학회, pp.31~55
- 조화순(2012) 「프롤로그」 『소셜네트워크와 정치변동』 한울아카데미, p.13.
- 遠藤薫(2010) 「『ネット世論』という曖昧—〈世論〉〈小公共圏〉〈間メディア性〉」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No.77, p.112, p.125
- 荻上チキ(2011) 『検証東日本大震災の流言・デマ』, 光文社新書, p.22, p.92, p.95, p.101
- 小林弘人·濱野智史(2011) 「対談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の可能性 シェアは何を変えているのか:小林弘人×濱野智史」 『ユリイカ』, 2011年2月号, pp.51-54.
- 柏原勤(2012) 「2ちゃんねるスレッドまとめブログ」によるニュー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関する一考察」, 『哲學』128集, 慶応義塾, p.210
- 川邊健太郎(2012) 「東日本大震災とYahoo!JAPAN」 『放送メディア研究』No.9, p.108
- 執行文子(2011) 「東日本大震災・ネットユーザーはソーシャルメディアをどのように利用したのか」 『放送研究と調査』2011年8月号, p.4, p.7.
- 竹熊健太郎(2011) 「『終わりなきに日常』が終わった日」 『思想地図β』N o.2, conjectures, p.150.
- 立入勝義(2011) 『検証東日本大震災 そのときソーシャルメディアは何を伝えたか?』, ディスカヴァー・トゥエンティワン, p.4, pp.40-48, p.172.
- 田辺龍(2006) 「『匿名掲示板』と世論形成の磁場」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No.68, pp.42-53.
- 津田大介(2011) 「ソーシャルメディアは東北を再生可能か」, 『思想地図β』2号, CONJECTURES, p.13
- 土田昭司·廣瀬幸雄(2012) 「震災原発事故に伴う市民・消費者・外国人の対応行動」

- 『検証3・11東日本大震災』關西大學社會安全學部編, ミネルヴァ書房, p.256.
 濱野智史(2008) 『アーキテクチャの生態系：情報環境はいかに設計されてきたか』
 NTT出版, p.156
- 吉次由美(2011) 『東日本大震災に見る大災害時の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役割～ツイッターを中心に～』『放送研究と調査』2011年7月号, p.23.
- 山田賢一(2011) 『「東日本大震災」は日中韓でどう伝えられたか～国際シンポジウムでの報告・議論から～』『放送研究と調査』2011年12月号, p.19
- Glitin, Todd(2002) “Public Sphere or Public Sphericules?” in *Media, Ritual, and Identity*, London: Routledge. pp.168-174.
- Slater, David H., Nishimura Keiko, and Love Kindstrand (2012) “Social ‘Media, Information and Political Activism in Japan’s 3.11 Crisis,”
 (<http://www.japanfocus.org/-Nishimura-Keiko/3762>, 2014. 02. 27)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3.11 East Japan Great Earthquake and Twitter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nd Anti-Nuclear Movements

In this article, I analyze the changes of Twitter from entertainment tool to information media in terms of the 3.11 East Japan Great Earthquake, including its influences on the anti-nuclear movements. After the start of its service in 2008, Twitter has increased its influence in Japanese society as one of the powerful social media, characterized as interactive and real-time media. . It is 3.11 East Japan Great Earthquake, however, that Twitter has been reevaluated as highly useful information media through active co-operation with mass media by Twitter users and the emergence of new user groups such as mothers searching for more accurate and reliable information. While severely criticized on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nd rumors and 'slacktivism,' users' dependence on SNS without substantial efforts for helping earthquake victims the one hand, Twitter has successfully worked as a 'new public sphericule' (Glitin 2002) especially in terms of anti-nuclear movements.

This function of Twitter as a 'new public sphericule' can be exemplified in three ways: 1) the active usage of Togetter, the Japanese curation service of Twitter, 2) the emergence of unofficial Twitter accounts of nuclear plants and their anti-nuclear activity such as monjukun_bot and plutokun_bot, and 3) the creation of network for anti-nuclear movements on Twitter. These cases still show the potentials of twitter, which has been functioning as a grassroot media for sending messages of anti-nuclear movements. But at the same time, the political potentials of Twitter has not studied in Japanese academia yet, which probably reflects Japanese people's weak percep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As conclusion, twitter is expected to function as reflecting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net and politics since 3.11.